

보도 일시	2023. 1. 30.(월) 09:00	배포 일시	2023. 1. 30.(월) 09:00
담당 부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장 오세용 (044-203-2049)
		담당자	주무관 정수림 (044-203-2053)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케이-컬처 알린다

- 1. 30.~2. 8. 신청서 접수, 17개 특별/광역 시도별 40~50대, 60~70대
 각 1명씩 총 34명 선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 매력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릴 4070세대 기자단을 1월 30일(월)부터 2월 8일(수)*까지 공모해 총 34명을 선발한다.

* 신청서 접수: 2월 8일 24:00까지

박보균 장관은 “지방의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고장의 특성화된 명품 문화를 개발하고 국민이 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서 고향의 명품 문화매력을 현장 숨소리까지 담아 이야기로 만들어 소통할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하 4070 기자단)을 신설했다. 문화 현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40~70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블로그에 공고 게시, 2월 13일 기자단 최종 발표

4070 기자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스포츠, 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며, 작성된 기사는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SNS)과 디지털 ‘케이-공감’(gonggam.korea.kr)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4070 기자단이 전국에서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광역 시도 거주자 중 만 40세~59세인 지원자 1명씩을 ‘4050

기자단'으로, 만 60세~79세인 지원자 1명씩을 '6070 기자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에 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문체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 놀이터'(<https://blog.naver.com/mcstkorea/22299599700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13일(월)에 4070 기자단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따로 붙임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 모집 포스터

